

## 강남다함께키움센터(역삼)

<b>사업명</b>	다함께돌봄사업 방과후 초등돌봄시설 다함께키움센터
<b>추진기관</b>	강남구청 여성가족과
<b>주소</b>	논현로64길 7(3층, 역삼청소년수련관)
<b>규모</b>	133.12㎡
<b>개소일</b>	2019. 11. 25
<b>건축사</b>	임수현 _ 와이건축사사무소

강남다함께 키움센터(역삼)는 역삼청소년 수련관 3층에 2개로 나누어진 강의실을 키움센터로 변경하는 프로젝트였다. 물리적 구조로 인해 2개의 주공간인 정적공간과 동적공간으로 계획하고 두 개의 공간을 연결하기 위해 연결 통로를 계획하였다.

키움센터 운영 프로그램을 보고, 방과 후에 학생들이 매일 와도 새롭게 느껴질 수 있는 작지만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했다.

초등학생들은 키움센터에서 친구들과 함께 놀고, 쉬고, 공부하는 다양한 활동을 하며 상당한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다. 초등학생들이 어른이 된 후 어린 시절의 추억으로 남을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디자인하였다.

공간의 구성은, 동적공간에는 동적 활동에 정적인 작은 공간으로 혼자 책을 보거나 잠깐의 휴식을 가질 수 있는 아지트 공간을 계획하였다. 또 동적공간에 모두 모여 앉아서 이야기하고, 간식을 먹고, 학교 과제를 할 수 있는 '모두의 테이블'을 중앙에 계획하였다. 정적공간은 다양한 형태로 쉬거나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을 계획하였다. 창가와 인접해 원형의 긴 벤치 형태로 친구들과 함께 쉬거나 책을 볼 수 있는 의자와 혼자 편안한 자세로 쉬거나 책을 볼 수 있는 함께, 그리고 나혼자가 가능한 선택적 공간으로 계획하였다.

키움센터의 재료는 작은 공간을 넓게 보이기 위해 흰색 바탕에 나무 느낌의 가구와 포인트 되는 곳은 파스텔 톤으로 편안한 공간으로 디자인하였다.



함께 또는 혼자 시간을 보내며 다양한 형태로 쉬거나 책을 읽을 수 있는 정적공간



1



2



3

1. 함께 또는 혼자 활동하는 정적공간 2. 동적공간 속 다함께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모두의 테이블 3. 모두의 테이블과 비밀 장소인 한쪽 구석의 아지트